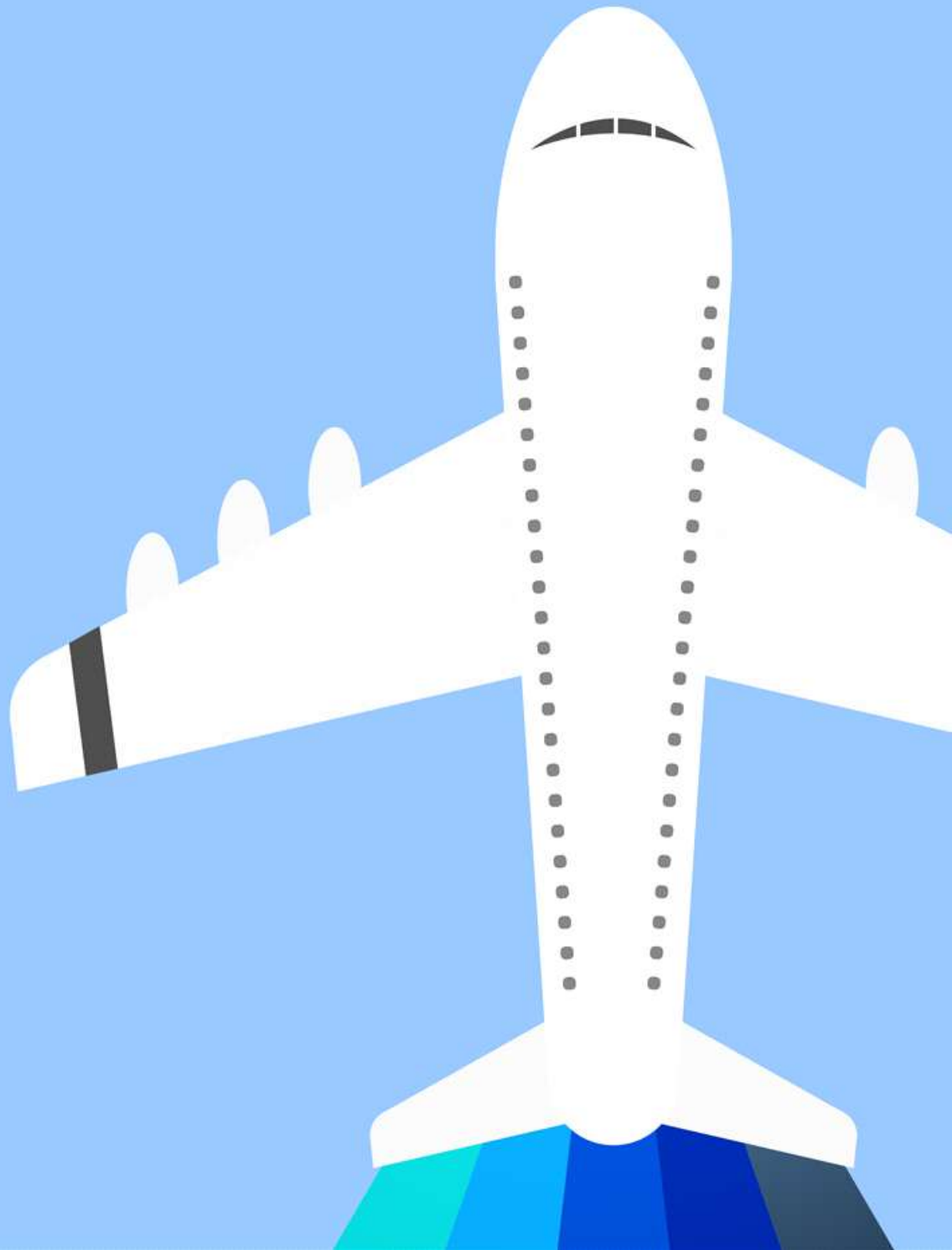


2025 해외출장 가이드

# 독일 뮌헨

*Munich*



## 목 차

I. 독일 개황 .....	3
II. 경제·교역동향 .....	5
III. 투자 동향 .....	13
IV. 지역 현안 .....	15
V. 바이에른주 개황 및 특징 .....	24
VI. 독일 방문 및 체류시 참고사항 ...	27
VII. 현지 주요 연락처 .....	35

## I. 독일 개황

### 1. 국가개요

국 명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독일어명 : Bundesrepublik Deutschland)
위 치	서유럽
면 적	357,683km <sup>2</sup> (한반도의 1.6배, 대한민국의 3.6배) ('23.12.31. 기준, '25.4. 현재 기준 최신 수치)
기 후	온대성, 연간 월평균 1.5~20°C ('24년 연평균 10.9°C)
수 도	베를린(Berlin)
인 구	8,360만 명 ('24년 기준, '25.1. 잠정 발표 기준) * '22년 인구 계산 방법 변경에 따른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기존의 '11년 인구 조사 기반의 인구 수치가 점차로 대체될 예정이며, 당분간 기존 수치 대비 편차 발생 가능 (예: '22.5.15. 기준 인구는 기존 약 8,400만 명에서 약 130만 명이 감소한 8,270만 명으로 조정 발표됨)
주요 도시	Berlin(399만 명), Hamburg(192만 명), Muenchen(160만 명) Koeln(110만 명), Frankfurt(78만 명) ('24.12.31. 기준)
민족(인종)	게르만족
언 어	독일어
종 교	카톨릭(24%), 개신교(21%), 이슬람교(4%), 무교(47%), 기타(4%) (자료원 : Fowid, '24.12.31. 기준)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Frank-Walter Steinmeier : 국가 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임일 : '17.3.19., 재임 : '22.2.13. 기 : 5 년</li> </ul> </li> <li>○ 수상 Friedrich Merz (기민연합(CD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임일 : '25.5.6. ('25.2.23. 조기 총선 시행, 단독 과반수 획득 실패로 기민·기사연합(CDU/ CSU)은 사민당(SPD)과 연정 협정 체결)</li> </ul> </li> </ul>

## 2. 경제지표

<b>명목 GDP</b>	4조 3,053억 유로('24년)
<b>1인당 명목 GDP</b>	50,819유로('24년)
<b>실질 경제 성장률</b>	-0.2%('24년)
<b>실업률</b>	6.0%('24년 평균), 6.3%('25.4. 당월)
<b>물가 상승률</b>	2.2%('24년 평균), 2.1%('25.4. 당월)
<b>화폐 단위</b>	유로(Euro)
<b>환율</b>	1유로 ≒ 1,578.08원('25.5.8. 기준)
<b>총 설비 투자</b>	8,980억 유로('24년, -0.2%(명목 기준)/ -2.7%(실질 기준))
<b>국내 총소비(민간 정부)</b>	3조 2,331억 유로('24년, +3.9%(명목 기준)/ +1.2%(실질 기준))
<b>교역 규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 1조 5,752억 유로(-0.3%(실질 기준))</li> <li>- 수입 : 1조 3,575억 유로(-0.6%(실질 기준))</li> </ul> </li> <li>○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 1조 5,483억 유로(-1.1%(실질 기준))</li> <li>- 수입 : 1조 3,078억 유로(0.2%(실질 기준))</li> </ul> </li> </ul> <p>* 독일 연방통계청 현재 집계 기준 최신 수치('25.4. 잠정 발표 수치)</p>
<b>주요 교역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기타 항공기,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기타 기계류,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 전자집적회로, 원심분리기·액체용·기체용 여과기·청정기</li> </ul> </li> <li>○ 수입 ('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석유 및 역청유(원유), 자동차부품,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의약품, 자동자료처리기계,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전화기 및 기타 음성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에 위한 기기,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축전지</li> </ul> </li> </ul>

\* 주 : 독일 연방통계청의 품목별 세부 통계는 순위가 부재한 관계로 Global Trade Atlas 통계 활용, 단, 독일 정부의 통계와 세부 통계 간 최신 발표 시점에 차이가 있음.

## II. 경제·교역동향

### 1. 독일 경제 현황 및 전망

□ 독일 정부, 美 관세 불확실성과 생산·소비·수출 등 전방위 경기 하방 요인 속 '25년 GDP 0.0% 전망, 3년 연속 성장 정체 위기 직면, '26년에야 +1.0% 성장 기대

○ (경기 현황) '24년 독일 경제는 예상됐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고용안정과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독일 GDP는 -0.2%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 '24년 민간 소비 +2.7%, 설비 투자 -5.5%, 수출 -1.1%, 수입 +0.2% 등 민간 소비 외 완전한 감소세 ('25.4.24. 독일 정부 봄 전망(실질 수치) 발표 기준)

- '24년 상반기 물가 상승세 둔화와 소비·경기 개선 기대에도 글로벌 성장 둔화로 대내외 수주 감소와 수출입, 생산·투자 부진이 이어지며 경기 개선 기대와 달리 역성장 흐름 지속

- '25.2. 조기 총선과 '25.4.9. 연정 합의에도 소비 심리 회복은 지연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투자 개선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

\* '24.12. +2.6% → '25.1. +2.3% → '25.2. +2.3% → '25.3. +2.2% → '25.4. +2.1%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

- 美 상호 관세 발효 이전 先수입 수요 증가로 일부 제조업 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하방 리스크로 인해 회복세는 제한적

○ (전망) 독일 정부는 최근 공식 봄 전망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글로벌 경기둔화로 '25년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0.3%( '25.1. 기준) → 0%로, '26년 성장률도 +1.1% → +1.0%로 소폭 하향 조정 발표 ('25.4.22.)

\* 독일 정부는 '25년 민간 소비 +2.0%, 설비 투자 +0.7%, 수출 -2.2%, 수입 +1.8% 등 수출 부진 속 완만한 증가세 전망 ('25.4.24. 독일 정부 가을 전망(실질 수치) 기준)

\*\*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도 무역 분쟁이 추가로 확대되지 않더라도 '25년 경제 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 이는 기존 +0.8% 대비 큰 폭 하향 조정된 수치 (자료원 : '25.4.10. Handelsblatt)

-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리스크, 높은 관료적 부담으로 투자 지연과 산업·소비 둔화가 지속되며 독일 경제는 사상 처음 3년 연속 성장 정체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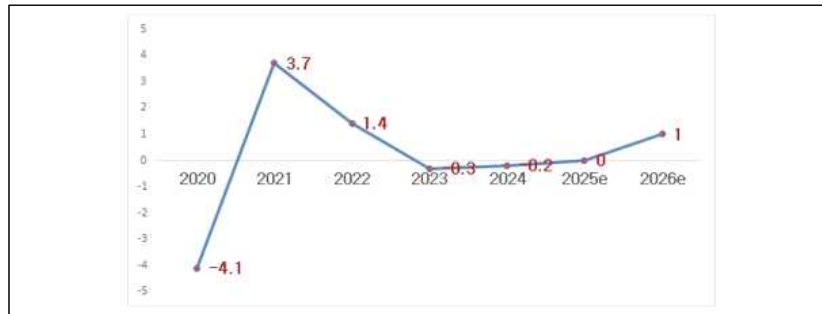
- 국제통화기금(IMF)도 '25년 독일 성장률을 0%로 전망하며, 美 관세 정책이 공급망과 자금 흐름을 저해해 심각한 경제 혼란 초래 가능성 우려 ('25.4.23. Tagesschau)

\* '25.4. IMF,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을 '25.1. 기준 +0.3% → 0.0%, '26년은 +1.1% → +0.9%로 하향 조정, 이로써 독일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경기둔화 전망

### <독일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GDP 성장률(%)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sup>e</sup>	2026 <sup>e</sup>
	-4.1	3.7	1.4	-0.3	-0.2	0.0	1.0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25.4.22. 수정 발표 기준), 독일 정부('25년과 '26년은 전망치)

- 독일 정부는 자유무역과 구조개혁을 성장 회복의 열쇠로 보고, EU-미국 간 관세 갈등 해소, 경쟁력 강화, 투자 촉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대응에 나설 계획, 경제 전망 악화 및 독일 대안당(AfD) 지지율 상승 속에서 차기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리 취임 직후 포괄적 경기 대책 패키지를 시행 방침 ('25.4.24. Handelsblatt)
  - \* '25.4.9. 발표된 양당 연정 합의서(Koalitionsvertrag)에 따르면 총 5,000억 유로(약 782조 원) 규모의 새로운 인프라 특별 기금 투자를 비롯해 설비 투자에 대한 30%의 특별 감가상각 적용('25년 소급 적용~'27년), 법인세 인하('28년부터 5단계에 걸쳐 1%p씩 총 10% 인하) 등이 포함
  - 하베크(Robert Habeck)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공식 봄 전망에서 “독일 경제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변수와 높은 무역 의존도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EU와 미국 간 관세 갈등 해결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숙련 노동력 부족, 인프라·디지털 투자 지연, 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문제를 신속하고 일관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25.4.24.)
  - **(생산)** 글로벌 경기둔화, 투자 부족, 美 관세 정책 부담으로 '25년 기계산업 회복은 어려울 전망, 자동차는 경제 악화 속 소폭 성장이 예상되며, 전기차 판매가 성장을 견인할 전망
  - \* **(기계)** 독일 기계및설비제조협회(VDMA)는 '24년 전년 대비 매출이 -10% 감소할 것으로 추산, '25년에도 -2% 감소 전망, 의료, 항공우주, 방산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 부진과 전반적인 수주 약화로 산업 전반의 침체 지속 전망 (자료원 : '25.2.6. VDMA, '25.1.11. Tagesschau)
  - \* **(자동차)**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25년 독일 자동차 판매를 280만 대(+1%)로 전망, 여전히 '19년 대비 약 1/4 낮은 수준, 순수 전기차 판매는 +75% 증가, 신규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23.8%에 이를 것으로 예상, '25년 독일 내 생산은 415만 대(+1%), 이 중 전기차는 170만 대(+24%) 예상, 해외 생산은 970만 대(+2%)로 전망 (자료원 : '25.1.21.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 **(소비)** 물가 상승세 둔화, 임금 상승, 실질소득 증가 기대와 더불어 '25년 +2.0%<sup>f</sup>로 경기회복세 견인 전망, '26년에도 +1.9%<sup>f</sup>의 완만한 증가세 예상

- **(물가)** 인플레이션은 '25년 +2.0%, '26년 +1.9%로 상승 폭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ECB 목표치 2.0%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안정세 유지 예상
- **(내수 수요)**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내수 수요도 소폭 증가할 전망 ('25년 +2.2%, '26년 +2.1% 전망, 실질 기준)
- **(고용)** '25.4. 실업률은 6.3%로 전월에 비해 0.1%p 상승, 실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만 2,000명 증가(+0.3%p), 전월 대비 36,000명 감소, 계절 조정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4,000명이 증가한 293만 2,000명 기록
  - \* 독일 연방노동청의 날레스(Andrea Nahles) 회장은 “4월에도 봄철 경기 회복세가 비교적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단지 소폭의 변화에 그치고 있다”라고 밝힘 (자료원 : '25.4.30. 독일 연방노동청(BA))
-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고용 감소 및 실업률 증가 예상, '25년 독일 실업률은 6.3%, '26년 6.2%로 전망되며, 특히 자동차 산업 부진에 따른 공장 폐쇄와 감원 조치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우려 (자료원 : '25.4.24. 독일 정부 및 최근 언론)

## □ **유럽중앙은행(ECB), 지난 '24.6. 금리 전환 이후 일곱 차례 금리 인하**

- \* 기록적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자 ECB는 '22.7. 기준금리를 0% → +0.5%p 인상 후 '23.9.까지 10차례 연속 인상 단행, '24.6.에는 '19년 이후 처음으로 0.25%p 인하 (자료원 : ECB)
- **(통화정책 완화기조 지속)** 유럽중앙은행(ECB)은 '24.6. 금리 인상 기조에서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7회 연속 인하 단행, 통화정책 전환 기조 지속 ('25.4.17.)
  - ECB는 글로벌 무역 갈등이 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디스인플레이션의 순조로운 진행 등을 고려해 '25.4.23.부터 수신금리(2.50% → 2.25%), 기준금리(2.65% → 2.40%), 한계대출금리(2.90% → 2.65%) 등 주요 정책금리를 각각 0.25%p 인하
  - \*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지난 '25.1. 2.5% → '25.2. 2.3%(수정 발표) → '25.3 2.2% → '25.4 2.2%로 소폭 하락 추세를 나타내며 ECB의 목표(2%)에 근접 (자료원 : '25.5.2. ECB)
- **(주요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해 금리 정책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이에 대해 코메르츠은행(Commerz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 크래머(Jörg Kramer)는 “평소 ECB를 자주 비판해 왔으나, 이번 금리 인하는 이해 가능하다”며, “유가 하락과 공급 증가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시사한다”고 평가 (자료원 : '25.4.17. Tagesschau)
  - ECB는 미국과의 관세 분쟁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으며,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총재를 중심으로 낮은 금리로 국내 경제를 지원하려고 노력
  - 라가르드 총재는 美 정부의 관세 정책의 부정적 영향과 경제 하방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면서도, '25.1분기 유로존 성장 가능성과 산업 부문 안정화, 유로화 강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을 언급 (자료원 : '25.4.17. ECB 및 Manager Magazin)



## 2. 독일의 교역동향

\* 통계 기준(달러화)을 위시해 통계 집계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GTA 수출입 증감률은 독일연방통계청 발표 수치와는 편차 有

### □ 주요 수출국 및 수출품목

- (수출국) '24년 독일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중국,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며, 전년 대비 폴란드와 영국은 순위가 상승한 반면, 중국은 한 계단 하락 - 미국(1위), 폴란드(4위), 영국(6위), 스위스(9위) 등을 제외한 10대 수출국은 소폭의 감소세 기록, 對폴란드, 對영국 수출이 +2.7%, +2.5%로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對중국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독일의 대중 1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 감소(-27.5%)와 더불어 -7.6%의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 기록
- 한국은 전년 대비 한 계단 하락한 19대 수출국으로 對한국 수출 규모는 21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4.0%로 전년에 이어 소폭 감소세 지속
- (수출품목) '24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기타항공기 등으로 자동차 수출 감소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 수요도 감소하며 의약품이 2위 품목으로 부상, 총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
- 전년도 코로나 팬데믹 완화와 더불어 기저효과로 큰 폭으로 감소한 의약품의 수출이 다시 회복세를 나타냈고, 더불어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역시 8%의 높은 수출 증가세 기록, 한편 전년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기타항공기는 소폭 감소

### <독일의 5대 주요 수출품목>

(단위 : U\$백만, %)

순위	2023년			2024년		
	품목	금액	증감률	품목	금액	증감률
총계	-	1,703,196	1.6		1,675,452	-1.6
1	자동차	178,171	14.3	자동차	174,482	-2.1
2	자동차부품	67,560	9.8	의약품	67,311	0.0
3	의약품	67,301	-9.5	자동차부품	63,716	-5.7
4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45,656	2.7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49,301	8.0
5	기타항공기	26,729	19.8	기타항공기	26,254	-1.8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 주요 수입국 및 수입품목

- (수입국) '24년 독일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네덜란드, 미국,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등으로 전년과 순위가 동일, 전반적 하락세 속 10위권 중 스위스 만이 +1.6%를 기록하며 상승세 시현, 브렉시트 이후 對영국 수입은 '23년 -6.6%에 이어 '24년에도 -1.7%의 하락세를 나타내며, 영국은 수입국 순위 12위 기록
- '24년 對한국 수입은 144억 달러로 -3.6%의 감소세 기록, 수입국 순위는 전년 25위 → 26위로 한 단계 하락, 수입시장 점유율은 전년과 동일한 1% 유지
- (수입품목) '24년 독일의 5대 수입품목은 자동차, 석유 및 역청유(원유), 자동차부품,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의약품 순이며,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
- 전년도 기저효과로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석유 및 역청유(원유)와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수요가 각각 5.8% 증가하며 회복세 시현
- 유럽 내 복합적 구조 문제와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른 의약품 공급난\* 지속 여파로 의약품 수입이 +6.5%의 증가세 기록
- \* 독일 및 유럽의 의약품 공급난은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 유럽 내 생산 축소, 에너지원가 상승, 재고 부족 및 병목현상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 <독일의 5대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백만, %)

순위	2023년			2024년		
	품목	금액	증감률	품목	금액	증감률
총계	-	1,467,808	-7.3	-	1,414,098	-3.6
1	자동차	79,317	15.6	자동차	70,933	-10.6
2	자동차부품	47,254	18.4	석유 및 역청유(원유)	48,361	4.8
3	석유 및 역청유(원유)	46,170	-26.7	자동차부품	46,858	-0.8
4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35,752	-11.8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37,583	5.1
5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32,591	-5.7	의약품	33,357	6.5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3. 한국과의 교역동향

#### □ 수출입 동향

- (수출) '24년 對독일 수출은 전년 대비 -12.4% 감소한 U\$903.8억 기록
  - 대독일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가 -53.4%, 9위 품목인 건전자·축전지 -68.3% 감소한 반면, 선박 및 부품은 +66% 증가하며 수출 3위 품목으로 부상
  - 반도체와 농약 및 의약품은 전년의 부진을 딛고 각각 +12.3%, +3.9%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
  - 또한 고무 제품과 합성수지가 각각 +36.2%, +23.7% 증가하며 증가세에 일조
  - '25.3. 누계 기준 對독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약 U\$25억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선박 및 부품 등 3대 수출 품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성장세를 견인
- (수입) '24년 對독일 수입은 최근 몇 년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하며 U\$223억 기록
  - 10대 수입품목 중 3위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22.3% 증가한 반면, 1위인 자동차(-14.1%), 2위인 농약 및 의약품(-2.4%), 4위인 반도체(-1.5%), 8위인 원동기 및 펌프(-16.5%)는 부진
  - '25.3. 누계 기준 對독일 수입은 전반적인 경기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산업 및 소비 수요가 줄어들며,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특히 부진
- (무역수지) '24년 무역수지는 총 U\$-133억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15년 이래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던 '22년 대비 적자 폭은 소폭 감소
  - '25.3. 누계 무역수지는 수입 감소세 영향으로 약 U\$-25억을 기록, 예년 대비 낮은 수준

#### <한-독일 교역동향>

(단위 : U\$백만,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21	11,110	16.0	21,996	6.4	-10,886
2022	10,068	-9.4	23,615	7.4	-13,547
2023	10,317	2.5	23,611	0.0	-13,294
2024	9,038	-12.4	22,301	-5.5	-13,293
2025.3	2,510	4.3	4,879	-3.7	-2,369

자료원 : K-stat

## □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 '24년 독일 경기둔화로 전반적인 산업 및 소비 수요가 위축되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한국의 대독일 1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53.4% 급감하며 전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특히 자동차는 전기차 보조금 종료, 수요 감소, 캐즘 현상 등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 9위 품목인 건전자·축전지도 전기차 판매 감소와 유럽 내 생산 확대 영향으로 -68.3% 감소하며 부진
  - 반면, 선박 및 부품은 대형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고부가 선박 수출이 본격화되며 전년 +10,109% 급증에 이어 '24년에도 +66% 증가해 수출 3위 품목으로 부상, 반도체는 업황 개선과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품목(DDR5·HBM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며 증가세로 전환, 또 농약 및 의약품도 코로나19 기저효과에 따른 이전 감소세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의 현지 입지 확대와 함께 완만한 증가세 기록
- '25.3. 누계 기준 대독일 수출은 +4.3% 증가세를 기록, 농약 및 의약품(+182.2%), 선박 및 부품(+98.2%), 자동차(+10.5%), 플라스틱 제품(+9.3%), 등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선전 중
  - 자동차는 국내 기업의 전기차 신차 라인업 출시 효과와 시장 수요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 증가, 반면, 전년 10위권 수출 품목이던 건전자·축전지는 -75.8% 감소하며 23위로 하락
  - \* 독일 정부는 조기 총선 후 연정 협상에 합의하고,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우대 및 감가 상각 수당 등 지원책 확대 예정('25.4.9.), 이는 자동차 시장 회복을 견인할 전망
  - 연초 반도체,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은 독일 산업·소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흐름

### <對독일 10대 수출품목>

(단위 : U\$백만, %)

순 위	품목	2024년		순 위	품목	2025년 3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b>총 계</b>	9,038	-12.4		<b>총 계</b>	2,510	4.3
1	자동차	1,305	-53.4	1	자동차	472	10.5
2	반도체	883	12.3	2	농약 및 의약품	419	182.2
3	선박 및 부품	841	66.0	3	선박 및 부품	333	98.2
4	농약 및 의약품	624	3.9	4	반도체	200	-16.8
5	자동차부품	585	0.7	5	자동차부품	123	-26.3
6	무선통신기기	535	13.5	6	고무제품	80	-20.0
7	고무제품	360	36.2	7	합성수지	66	-35.5
8	합성수지	346	23.7	8	무선통신기기	62	-56.9
9	건전지 및 축전지	216	-68.3	9	금속공작기계	44	-17.7
10	금속공작기계	197	-10.5	10	플라스틱 제품	38	9.3

자료원 : K-stat

## □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 '24년 국내 경기둔화 영향으로 수입 1, 2위 품목인 자동차와 농약 및 의약품이 각각 -14.1%, -2.4% 감소하며, 전체 수입도 -5.5%로 부진한 흐름 시현
  - 특히 국내에서 발생한 독일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소비 위축도 판매 감소 요인으로 작용
  -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요도 전년 +36.2%에 이어 +22.3%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수출 3위 품목 입지 유지
  - 한편, 국내 산업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 영향으로 원동기 및 펌프(-16.5%), 산업용 전기기기(-8.1%), 기계요소(-4.3%) 등은 뚜렷한 감소세 시현
- '25.3. 누계 기준 대독일 수입은 유로화 대비 고환율(원화 약세) 지속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일부 주요 수입품목의 수요 위축으로 -3.7%의 감소세 기록
  - 특히 '25년 반도체 업황 하락 사이클 진입 전망 속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수입이 각각 -41.9%, -64.8%로 큰 폭으로 감소
  - 수입 1위인 자동차는 국내 수입차 대중화와 독일 '3강'(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신차 출시 효과 등에 힘입어 +9.1% 증가하며 상승세로 전환
  - 이 외에도 전방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입되는 특성상, 경기 흐름을 선반영하는 지표로 간주되는 정밀화학원료가 +32.3% 증가하며 높은 증가세 시현, 전년도 감소했던 원동기 및 펌프 역시 증가세로 전환

### <對독일 10대 수입품목>

(단위 : U\$백만, %)

순 위	품목	2024년		순 위	품목	2025년 3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b>총 계</b>	22,301	-5.5		<b>총 계</b>	4,879	-3.7
1	자동차	5,654	-14.1	1	자동차	1,207	9.1
2	농약 및 의약품	1,778	-2.4	2	농약및의약품	381	-15.5
3	반도체제조용장비	1,126	22.3	3	원동기및펌프	203	5.0
4	반도체	994	-1.5	4	계측제어분석기	181	-8.1
5	계측제어분석기	883	-0.5	5	반도체	168	-41.9
6	자동차부품	767	4.7	6	자동차부품	165	1.7
7	기계요소	663	-4.3	7	산업용 전기기기	153	-5.1
8	원동기 및 펌프	626	-16.5	8	기계요소	152	-11.3
9	산업용 전기기기	610	-8.1	9	정밀화학원료	111	32.3
10	정밀화학원료	429	6.8	10	반도체제조용장비	106	-64.8

자료원 : K-stat

### III. 투자 동향

#### □ 독일의 對한국 투자

##### ○ '24년 대한 투자 현황

- (투자 감소세) 독일 기업은 러-우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초래한 ① 경기 불확실성, ②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대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 이에 따라, 독일의 對韓 투자도 '22년~'23년 2년 연속 감소, '24년에는 대외 불확실성과 독일 경기 둔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및 전기·전자 분야 국내 대형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세로 전환
- \* (화학기업 K社 인터뷰) 독일의 對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는 '22년 50%를 상회한 가운데 러-우 사태로 인해, 상당수 독일 기업은 해외투자 자금을 에너지 가격 상승분 충당에 사용
- (첨단 제조업 수요 연계형 투자) 전체 투자액의 약 70%가 반도체, 미래차, 배터리 등 국내 첨단 제조업發 수요 대응을 위한 투자로 분석

##### ○ '25년 대한 투자현황

- '25년 1분기까지 10건의 투자신고 및 총 2억 5,9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짐

#### < 최근 5개년 독일의 대한 투자 추이 (연도별 투자신고 기준) >

(단위 : US\$백만,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성장률 (CAGR)
신고금액	525	2,836(560*)	538	207(479**)	342	△10.2%
신고건수	52	50	60	47	54	0.01%

주1 : '21년 D社 22억 7,600만 달러 투자금액 제외 시

주2 : M社의 2억 7,200만 달러 포함 시 (싱가포르를 통해 투자신고)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 대한 투자 전망

- (獨 경기둔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24년 독일 경제는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약화, 고비용 및 전반적인 수주 감소가 겹쳐 '23~'24년 2년 연속 전년 대비 역성장 기록. 美 관세 부과\* 조치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독일에 악재로 작용할 시, 독일 기업들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투자 자체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존재
- \* 美 관세 부과 시 독일은 330억 유로(50조 원)의 경제적 피해 예상 (독일 Ifo 경제연구소 '24.11)
- (한국 업황에 대한 일부 우려 존재) '24.11. 독일 상공회의소의 3,500여 개 회원사 대상 설문 결과, 독일 기업들은 한국 내 단기 업황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국내

사업을 진행 중인 독일 기업의 76%가 최근 5개년간 한국 내 자사 경쟁력이 개선·유지 되었다고 평가한 점은 긍정적임

- (차이나 플러스 원 수혜 가능성) 다만, 독일 기업들은 對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투자처로 아세안 국가들을 최우선 검토할 것으로 예상, 다만,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에서는 삼성, SK, 현대 등 앵커기업 인근에서 안정적 공급망을 형성하려는 독일 기업의 국내 투자 가능성도 공존

## □ 한국의 對독일 투자

- (투자동향) 우리 기업의 對 독일 투자는 총 88억 달러, 925개의 법인 진출
    - 독일의 경기 약화에도 불구하고 '24년 신규법인 설립은 전년 대비 4건 증가한 37건, 투자 금액은 전년 5억 600만 달러 대비 약 25% 증가한 6억 9,800만 달러를 기록
    - '24년 신규 투자 신고 건수는 238건으로, 전년 투자 신고 건수 205건 대비 33건 증가
  - (진출유형)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판매 · 영업거점 구축이 주요 목적
    - 유럽 최대 내수시장, 현지 및 한국인 고급 인력 수급 용이성, 한국 및 다른 유럽 국가와의 교통·물류 편리성으로 독일은 판매 및 서비스거점으로서의 강점 보유
  - (진출업종) 자동차부품·화학·기계·의료기기 등 제조업 분야 중점 진출
    - '24년 신규 투자 신고 건수에 있어 제조업의 비중이 총투자의 70%(168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이어 도매 및 소매업이 19%(46건)를 차지
    - 삼성, LG, 현대·기아차,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및 인근에 유럽법인을 설립하여 유럽 시장 성공적 진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
  - (최근 트렌드) 미래차 등 유럽 첨단산업 내 지역가치사슬(RVC) 기반 공급망 재편 가속화
    - 유럽 역내 공급망 구축 및 현지 거점 확보를 위한 우리 기업의 독일 투자 진출 지속
    - 독일 정부의 미래 모빌리티 전환 및 배터리셀 유럽 생산허브 구축 목표('30년까지 유럽 전체 생산량의 25% 점유) 등 디지털그린 전환 정부정책과 연계한 공급망 재편 분야 투자 진출 지속
    -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독일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 진출도 꾸준히 발생
- ☞ '20년 7건, '21년 3건, '22년 14건, '23년 6건, '24년 5건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의 대독일 투자 추이 (연도별 해외직접투자통계 기준)>

(단위 : 억 달러, 건)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누계('80~'24.2Q)
투자금액	7.3	3.5	5.1	5.1	7.0	8.8
신규법인	40	32	45	34	37	92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IV. 지역 현안

### □ '25.2.23. 조기 총선 및 '25.5.6. 독일 신정부 출범

- **(조기 총선)** 독일은 솔츠 총리(SPD)가 이끄는 신호등 연정이 예산 문제와 경제 정책을 둘러싼 갈등 심화로 인해 '24.11.6. 해체되면서 조기 총선 시행
  - **(주요 배경)** 솔츠 총리는 자민당(FDP) 소속 린드너(Christian Lindner) 재무장관의 해임과 연정 종료를 선언하고 총리 신임투표를 요청했으며('24.11.6.), 이에 따라 '24.12.16. 연방의회 신임 투표 표결 후 애초 '25.9. 예정이던 총선을 앞당겨 '25.2.23. 실시
  - 선거 결과, 중도 우파 성향의 기민·기사 연합(CDU/CSU)이 28.5% 득표율로 승리,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2위로 약진, 사회민주당(SPD)은 16.5% 득표율로 3위에 그치며 '21년 총선 대비 9.2%p 하락
    - \*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했던 녹색당(11.7%)과 자유민주당(4.4%)은 지난 총선 대비 각각 -3%p, -7%p 하락
- **(신정부 출범)** 기민·기사 연합(CDU/CSU)의 총리 후보 메르츠(Friedrich Merz)가 연방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되며, 사회민주당(SPD)과의 흑·적 연정이 출범 ('25.5.6.)
  - 연방의회에서 열린 1차 총리 선거에서는 메르츠가 과반수(316표)에 6표 부족해 선출에 실패 하며 독일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나, 이어진 2차 투표에서 325표를 얻어 필요한 과반수를 넘기며 신임 총리로 공식 선출
    - \* 이후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연방대통령이 메르츠를 총리로 임명하고, CDU/CSU와 SPD가 총 328석을 확보한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공식 출범함
  - 각 부처 장관 인선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SPD는 총선에서 16.4%라는 사상 최저 득표율 에도 불구하고 7개 부처를 확보. CDU는 총리실 포함 6개 부처, CSU는 3개 부처, 무소속 의원은 1개 부처를 담당하기로 확정
  - **(특이 사항)** 디지털화·국가 현대화 담당 부처 신설 및 경제·기후보호부는 경제·에너지부로 개칭되는 등 부처 명칭 일부 변경
    - \* 전 SPD 당 대표 클링바일(Lars Klingbeil)이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에 선임. 경제·에너지부는 라이헤(Katherina Reiche, CDU), 내무부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CSU), 외무부는 바데풀(Johann Wadephul, CDU), 교통부는 쉬니더(Patrick Schnieder, CDU), 디지털화·국가 현대화부는 빌트베르거 박사(Dr. Karsten Wildberger, 무소속)로 각각 확정
-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독일 내 기업 투자 수준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메르츠 총리의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 평가 (자료원 : '25.5.6. Handelsblatt)



## □ 독일 흑·적 연정,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전방위 정책 개혁 및 인프라 투자 본격 추진

- 독일 흑·적 연정은 경제·노동·사회·이주·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정책 개혁 추진, 총 5,000억 유로 (약 782조 원, 5.12. 기준) 규모의 인프라 특별 기금을 통해 중장기 경제 발전을 도모할 계획
- 여기에는 전기세 인하, 전기차 지원, 연금 안정, 국방력 강화 등 구체적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치적 안정과 함께 산업·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 기대

### <독일 흑·적 연정의 주요 정책 추진 방안>

분류	주요 분야	주요 추진 방안
경제	전기세 인하	kWh당 최소 5센트(t) 인하, 전 국민 전기세 유럽 최저 수준 인하, 추가 요금·송전망 요금 인하 예정
	소득세	저·중소득층 소득세 인하 및 세제 개편
	전기차	세제 혜택 한도 10만 유로 상향, 특별 감가상각, '35년까지 자동차세 면제, 저·중소득층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PHEV·EREV 보급 촉진, '26년 이후 무공해 트럭 통행료 면제, 상용차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
	법인세	'28년부터 5단계에 걸쳐 1%p씩 총 10% 인하
	부가가치세	요식업 부가세 19% → 7% 영구 인하 ('26.1.1.)
	농업계 보조금	농업용 디젤 유류세 환급제 재도입, 농업·임업 대체연료 에너지세 면제
노동사회	최저임금	최저임금 15유로 인상 목표
	연금	연금 수준 48% 유지('31년까지 법적 보장), 자발적 근로자 월 2,000유로 비과세 적용
	시민 수당	現 시민 소득 시스템 → 새로운 '기초 보장' 전환 * 정당한 노동 반복 거부 시 혜택 박탈 예정
	의료	대대적 의료 개혁 추진
	근무시간	일일 8시간 → 주당 근무시간 체계 도입(단, 고용주·노조 간 협의 하 설계 필요), 초과근무 보너스 비과세
이주	국적법	귀화 대기 단축, 이중 여권 유지, 육로 국경 망명 신청 거부 가능 * 테러 지지자, 반유대주의자, 자유민주 기본 질서 폐지 주장 극단주의자의 시민권 박탈 여부는 헌법에 따라 검토 예정
	가족 재결합	보충적 보호 수혜자 가족 재결합 일시 중단, 송환 캠페인 예정
국방	국방 계획	국방 역량 강화, 신정부 출범 6개월 내 연방군 계획·조달 가속화 법안 제출, 우선 무기 조달 목록 작성
	국방비	국방비 GDP 1% 초과분 부채 감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연방군 특별 기금 즉시 사용
기타	특별 기금	인프라 구축을 위한 5,000억 유로 특별 기금(시민 보호, 교통, 병원, 에너지, 교육, R&D 등의 분야)

	기후 보호	기후 중립 철강·온실가스 할당량, 조달법 요건 통해 기후 중립 제품 시장 창출
	임대료/기타	임대료 최초 2년 → 4년으로 연장, 사회주택 확대, 도이칠란트 티켓(독일 전역 대중교통 이용 가능 월 정액권 58유로) 지속, 선거법 개혁 예정* * '25.2.23. 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직접 당선되었음에도 일부 후보가 위임장을 부여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자료원 : 연정 합의서(Koalitionsvertrag) ('25.4.9.)

○ 메르츠 신임 총리, 독일-프랑스 협력 재출발 선언 및 국방 중심 실무 협력 본격화

- 메르츠 총리는 취임 직후인 '25.5.7.(수) 프랑스를 방문해 EU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며, '유럽을 위한 독일-프랑스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 특히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무 그룹을 구성해 양국 간 협력을 본격 강화할 계획임
-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독일과 프랑스가 핵에너지, 무역 정책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 (자료원 : '25.5.8. Handelsblatt)

○ 기대효과

- 독일 흑·적 연정 합의는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 정치 불확실성 해소 및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속 정치 안정성 회복 계기로 작용, 정치·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 전망
- 특히 전기차 지원·인프라 투자 확대는 관련 분야 수요 증가로 이어져 우리 수출기업에 긍정적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 독일 신정부의 전기차 확대 기조와 충전 인프라 확충에 따라 한국의 대독일 수출 효자 상품 중 하나인 배터리 수출 역시 회복 기대감

## □ 美 트럼프發 관세 충격에 따른 독일 경제 피해 및 대응 분석

○ 美 트럼프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평가

- 현재 트럼프發 관세 이슈 영향 속 세계 증권 시장 및 美 채권 금리 급락으로 트럼프는 대통령은 상호 관세(중국 제외)를 시행 직후 유예하고 각국과 1대1 협상을 진행 중

### <미국과 EU의 관세 조치 동향 및 최근 EU 대응 동향>

- **(품목 관세)** 美 트럼프 신행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 ('25.3.12.~), 맥주캔, 빈 알루미늄 캔 ('25.4.4.~)
- **(품목 관세)** 전 세계 모든 차량과 자동차 부품 수입에 25% 관세 (각각 '25.4.3.~, '25.5.3.~), USMCA 적용 제품 적용 유예
- **(상호 관세)** 전 세계 기본 관세 10% ('25.4.5.~)  
\*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구리, 의약품 등 품목 관세 적용(예정) 품목 및 에너지, 특정 광물 제외
- **(국가별 상호 관세)** 185개국, 국가별 개별 관세 추가 부과 (10~50%), EU 제품에 20%의 관세 부과 ('25.4.9.~) (캐나다, 멕시코 제외), 한국은 25%, 90일간 ('25.7.8.까지) 관세 유예(중국 제외)

- \* (캐나다·멕시코·중국) 펜타닐·불법 이민자 위협 관련 관세 캐나다, 멕시코에 25% ('25.3.4.~, 1개월 유예 후 적용), 중국에 10% → 20% 부과 ('25.2.4., '25.3.4.)
- **(미·중 극적 합의)** '25.5.12. 미·중 양국은 90일간 상호 관세를 일시 인하하기로 합의, 앞으로 미국은 대중 관세를 145% → 30%,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 → 10%로 하향 적용 및 대미 희토류 수출 규제 폐지 (90일간) ('25.5.14.~)
- \* 합의 이전 미국은 대중국 수입품에 145%의 관세 부과 ('25.4.10.~),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최대 125%의 관세 부과 ('25.4.12.~), 또 중국은 특정 광물의 수출 제한 강화 ('25.4.4.~)
- **(EU 대응)** EU 역시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조치를 90일간 유예하며, 협상 여지 마련 ('25.4.14.)
- 그러나 최근 EU는 미국과의 협상 진전이 되지 않는 관계로 최대 950억 유로 규모의 상계 관세 부과 가능 목록을 공개하며 미국에 추가 관세 부과 경고 및 WTO 제소 준비 ('25.5.8.)
- \* EU는 미국의 '상호주의 관세'와 '자동차·부품 관세'가 WTO 규칙 위반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분쟁 절차를 개시할 예정
- \*\* EU는 '25.4.에 발표한 210억 유로의 목록에 추가해 '25.6. 말부터 보잉, 포드, GM, 월풀, 잭 대니얼스 등 주요 미국 수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
- \*\*\* 한편, 현지 언론 폴리τικο(Politico)에 따르면, 미국은 EU에 무역협상 의사 서한을 전달하며 협상 의지를 처음으로 표명 ('25.5.14.)

- 독일 정부, 美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및 성장 전망 악화가 독일 경제에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
- \* 독일 경제기후보호부는 “미국 관세 인상과 중단으로 글로벌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혼란이 커지며 무역·성장 전망이 악화됐고, 이는 독일에 매우 불리한 시기에 발생했다”고 평가 (자료원 : '25.4.14. ZDF)
- \* 독일 쉘츠(Olaf Scholz) 총리는 관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패지만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전 세계에 번영을 가져온 무역 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력히 비판 (자료원 : '25.4.3. Die Welt)
- **(손실 추산)** 독일 IW 경제연구소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으로 독일이 '28년까지 연간 GDP의 1.6%에 해당하는 최대 3,000억 유로, EU는 최대 1조 1,000억 유로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
-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관세는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영구적인 0.3% 감소를 의미할 수 있으며, 제약, 자동차, 기계 등 일부 주요 부문은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자료원 : Tagesschau, '25.4.3.)
- \* (종합)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독일 경제 피해가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클 것으로 평가
- **(가격 압박)** 더불어 미국의 높은 관세로 인해 중국 수출품의 우회 수출 증가로 EU 역내 시장과 독일 수출기업이 중국 공급기업과 경쟁하는 다른 국가에서 큰 가격 압박 초래
- 이로 인해 독일 기업의 내수와 수출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 독일 수출 산업은 글로벌 경기 약세로 추가 타격을 받을 전망
- **(원자재 공급망)**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독일 및 EU 기업들이 미국을 겨냥한 조치의 부수적 피해의 위협에 직면, EU는 공급망 다변화와 자체 자원 확보를 위한 대응에 박차 (자료원 : '25.4.16. Handelsblatt)
- \* 중국은 '25.4.4. 사마륨, 가돌리늄, 디스프로슘, 테르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가지 같은 특정 특수 원자재 수출 시 특별 허가 요구

- 이 외에도 일부 산업군 부품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우려 제기, 아울러 차후 제약을 위시한 다른 산업군으로 관세 확대 우려 상존
- **(긍정적 효과)** IW는 미·중 관세 갈등이 독일 경제에 제한적 긍정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며,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로 독일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더 선호될 가능성 언급

○ **美 관세 영향 속 독일의 기간 산업인 자동차 산업 기업에 부정적 영향 예상**

- 독일 자동차 산업 협회(VDA)는 미국 관세로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부담 예상
  - \* VDA 뮐러(Hildegard Muller) 회장은 이번 조치를 “무역 정책의 근본적 변화”로 평가하며, 이는 기업과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큰 부담이자 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 또한 EU는 단결된 대응과 함께 협상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 (자료원 : '25.4.3. Die Zeit)
- 유럽 자동차 부품기업 협회(CLEPA)에 따르면, 美 관세 부과로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는 15,000개 일자리 감축과 수출 30% 감소 위기에 직면 (자료원 : '25.4.22. Automobilwoche)
- 독일 완성차 기업은 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BMW와 메르세데스보다는 미국에서는 생산이 전무한 포르쉐와 아우디를 포함한 VW 그룹이 가장 타격을 입을 전망
  - \* “트럼프 대통령의 EU 대상 자동차 관세는 폴크스바겐(VW) 등 글로벌 경쟁업체에 타격을 주는 반면, 북미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중국 BYD에는 기회로 작용, 무역 상대국을 악화시켜 미국을 강화하려는 관세 정책은 오히려 그 반대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IMF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 장벽은 전 세계 성장 둔화는 물론, 특히 미국 내에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25.4.25. Handelsblatt)
- 특히 BMW의 경우 '24년 美 스파르탄버그에 있는 공장에서 약 40만 대의 자동차 생산, 이 중 40% 이상이 미국에서 판매
  - \* 특히 BMW는 스파르탄버그(Spartanburg)에 하루 1,500대 생산 규모의 대형 공장을 운영하며, 유럽과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수출업체
  - \*\* 브라첼(Stefan Bratzel)과 쉬보페(Frank Schwöpe)와 같은 자동차 전문가는 BMW가 고도의 현지화를 통해 관세 분쟁과 기타 지정학적 격변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고 평가 (Automobilwoche, '25.4.17.)

**<주요 독일 완성차기업의 주요 대응 전략>**

기업명	주요 대응 전략
폴크스바겐(V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5.까지 미국 내 가격을 동결하고 당분간 관세로 인한 수입 비용을 소비자에 미전가할 예정</li> <li>• 美 테네시 공장 외에도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또 다른 공장을 건설 중이며, “총투자 금액이 1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한다”고 밝힘</li> </ul>
BM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생산-지역 공급(Local for local)’ 전략을 고도화하며 미국·중국·유럽 간 생산과 판매의 균형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정 추진</li> <li>• 현재 美 스파르탄버그(Spartanburg)와 우드러프(Woodruff) 지역에서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해 약 14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진행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MW의 CFO 메르틀(Walter Mertl)은 “관세 인상은 일부 일시적일 뿐이며 '25.7.부터는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낙관 ('25.5.7.)</li> </ul>
메르세데스-벤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초 유럽자동차제조회사(ACEA) 회장에 취임한 메르세데스 CEO 칼레니우스(Ola Kallenius)는 미국에 있는 11,000명의 직원을 언급하며, “따라서 메르세데스-벤츠도 미국 기업’이라고 강조 (자료원 : '25.1.27. Automobilwoche)</li> <li>• 이미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또 다른 SUV(예 : GLQ)를 현지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사 관계자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남아프리카 공장을 언급하고, “결국 유연성은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 대처하는 열쇠”라고 밝힘</li> </ul> </li> <li>• 직접적인 대응 방안은 아니나, 동사는 '27년까지 절감 패키지를 통해 고정 비용 10% 절감과 헝가리(Kecskemet) 생산 이전 및 동유럽 저임금 국가 내 생산 비중 확충(現 15% → 30%) 계획 발표 ('25.2.21.)</li> </ul>
아우디(Au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크스바겐 그룹과 그 자회사인 아우디와 포르쉐는 미국 내 생산을 검토 중이며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테네시주 채터누가(Chattanooga) 소재 폴크스바겐 공장의 확장임 (자료원 : 1.29. Handelsblatt)</li> <li>• 美 채터누가에 있는 VW 공장 활용 여부 검토 중이며, 연내 결정 예정 (자료원 : '25.2.19. Automobilwoche)</li> </ul> <p>* 동사는 '25.4.2. 이후 대미 차량 공급 중단</p>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Automobilwoche

#### ○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대한 한국 수출 현지 진출 기업의 대응 방안

- 독일에서는 중국산 수출품 우회로 인한 공급 과잉과 함께, 미국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 코메르츠은행(Commerz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 크래머(Jörg Kramer)는 “트럼프의 관세 충격이 경제적 위험을 크게 높였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일부 상품을 유럽 등에서 판매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자료원 : '25.4.17. Tagesschau)
- 우리 기업 역시 ‘생산성 확충, 원가 절감, 기술 경쟁력 확보, 대체 시장 발굴’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독일 및 EU 시장 내 중국을 위시한 각국의 수출품 과잉 공급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니터링 강화 및 시장 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

### □ 정부 주도의 전방위 탈탄소 노력 확산 및 디지털·공공투자 집행 본격화

#### ○ (그린) EU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동참을 위한 제반 조치 시행

- \* 『Fit for 55('21.7.)』: '50년 기후 중립, '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90년 대비)
- (독일 정책 목표) ('23.4.) 脫원전 달성 이후 (~'30년) CO<sub>2</sub> '90년 대비 65% 감축·(~'38년) 脫석탄·(~'45년) 기후 중립
  - \* 예산상의 제약이 있었으나 '25.3.18. 독일 연방의회가 재정 패키지 마련을 위한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교통·에너지·교육·의료·과학·디지털화 등 주요 인프라 사업과 약 1,000억 유로 규모의 기후 전환 프로젝트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

- **(제반 조치)** 신속한 인프라 확장, 기후 보호법 조정, 난방시스템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후 보호 및 계획 가속화를 위한 현대화 패키지' 결의안 발표('23.3.28.)에 이어 기후보호법 개정('24.4.26.) 신건물에너지법(GEG) 개정('24.1.1. 발효), 기후 중립 생산 전환을 위한 기후보호계약(CCFD, 일명 탄소차액계약제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발족('23.6.) 및 제1차 입찰('24.3.12.~7.11.)과 2차 입찰('24.7.29.~9.30.)에 대한 EU 승인 완료('25.3.24.) (자료원 :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 **(수소 생산 및 인프라 구축)** 독일 정부는 22개 추가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결정으로 수소 프로젝트 시행 공식화\*\* ('24.7.15.) 및 수소 및 수소 파생물 수입 전략\*\*\* 도입 결정 ('24.7.24.)
  - \* '30년까지 수전해 시설을 두 배 확대, '28년까지 최소 1,800km 길이의 수소 파이프라인 설치 추진
  - \*\* 이는 '24.2. EU의 승인에 따른 IPCEI(유럽 공동관심 프로젝트) 'Hy2Infra' 프로젝트 차원에서 지원되며, 독일은 총 79억 유로(정부 46억 유로+기업 33억 유로) 투자 예정
  - \*\*\* 독일 정부는 '30년까지 수소 및 그 파생물에 대한 국가 수요를 총 95~130TWh로 추산, 이중 약 50~70%(45~90TWh)는 해외에서 수입 필요 예상, '30년 이후에도 수입 비중 지속 증가 전망

○ **(디지털)**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 산업별 DX(Digital Transformation)·5G·클라우드 등 인프라 기반 구축 등
  - \* '23년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랭킹에서 독일은 75.32로 23위, 싱가포르가 1위, 한국은 4위 (자료원 : '24.11.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 범정부 차원의 협업으로 '25년까지 공공행정, 의료시설, 교육 등 디지털화 추진 및 18개의 세부 프로젝트(Leuchtturmprojekte)\* 추진
  - \* △데이터, △디지털 신분증, △온라인 환자 관리 시스템, △국가 온라인 평생 교육 플랫폼, △농촌 지속 가능 디지털화, △AI 분야 스타트업 지원 등

○ **(공공투자)** 지속 가능하고 기후 중립적인 對유럽 투자를 위한 EU 경제회복기금(RRF) 자금 전도 본격화 기대

- 대독일 RRF 총지원금은 323억 유로, 이 중 보조금이 303억 유로로 대다수 차지, 전체 예산의 49.5%는 기후 목표(그린 전환), 47.5%는 디지털 전환에 배분될 예정
  - \* '24.12. 집계 기준 독일은 총 303억 유로의 RRF 보조금 중 약 2/3에 해당하는 198억 유로를 인출, 나머지 105억 유로는 '25년과 '26년 중 인출 예정 (자료원 : EU 집행위 및 EU RRF Scoreboard, '25.5.6.)
  - \*\* 풍력 발전소 확장, 친환경 상용차 보급, 에너지 효율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그린수소(15억 유로), 전기차(25억 유로), 건물 리모델링(25억 유로) 등 그린 전환 분야에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디지털 전환 분야는 행정, 교육, 의료, 병원, 자동차 산업 등의 디지털화를 포함해 반도체 및 통신 기술(15억 유로), 클라우드 인프라(7.5억 유로),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30억 유로)에 중점 투자될 예정
- **(기대효과)**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IW)에 따르면, RRF 지원을 통해 독일 GDP가 장기적으로 약 +2%, 고용은 약 +0.5% 증가 추산 (자료원 : 독일경제·기후보호부)

- **(우리 기업 시사점)** 한국 기업은 녹색 수소 기술을 비롯한 수소 인프라 구축, 디지털 민간·공공 부문 개발 등과 연계해 프로젝트 협업, 공동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전략적 협력 기회를 모색 필요
- **(수소 생태계 진입 기회)** 특히 그린수소 생산 기술의 상용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소 생태계에 진입하고, 대용량 수소 저장 기술(예: 액상유기수소운반체, LOHC) 등 국내 강점 기술을 활용한 제품 상용화를 통해 신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 확대
- 독일의 공급망 구축 흐름에 발맞춰 수소 공급망 생태계에 조기 진입하기 위한 기술 기반 강화와 현지 파트너십 확대 노력이 요구됨
- **(디지털 전환)** 아울러 반도체, 통신장비, 클라우드,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등의 분야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내 디지털 전환 시장 진입 기회 확대 기대

## □ 독일 및 유럽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편승한 소·부장 시장 본격 공략 기회

- **(반도체 투자유치)** 독일 정부, 독일 내 반도체 생산 입지 구축에 총 200억 유로(약 31.5조 원, '25.5.13. 기준) 지원 예정 (~'27년)
  - **(배경) (반도체 자립)** 독일 및 EU 역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 노력에 편승한 시장 진출 기회 모색
  - 유럽 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부재로 해외 파운드리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역내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한 '팹' 신축에 총력
  - 지정학적 긴장 및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공급망 다각화 및 역내 첨단 생산 입지 구축
    - \*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독일 드레스덴(Dresden)에 반도체 생산시설 착공('24.8.), 자동차 산업용 칩 중심으로 '27년부터 생산 개시 예정, 美 인텔(Intel)은 '24년 독일 막데부르크에 반도체 공장 2개 착공(총투자 약 300억 유로, 일자리 3,000개)할 계획이었으나, 매출 손실 및 긴축 프로그램 영향으로 투자를 2년 연기하기로 결정 (자료원 : '24.9.17 Handelsblatt)
  - \*\* 독일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Infineon) 역시, '23.5. 50억 유로(약 7.8조 원)를 투자, 드레스덴(Dresden)에 신규 생산공장 준공 중, '26년 전력반도체와 아날로그 반도체 생산 개시 예정
- **(EU 반도체법)** EU 집행위, '30년까지 해외기업의 역내 투자유치와 '30년 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0% 역내 생산(현 약 10%)을 목표로 반도체법 발효('23.9.21), 총 430억 유로 투자
- **(기대효과)** 독일의 반도체 산업 입지 구축에 일대 전기 마련, 독일 및 EU 역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
  - \*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민간 투자와 함께, 동시에 국가 프로젝트로 4,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자료원 : '23.6.8. Handelsblatt)



- **(우리 기업 시사점) (소·부·장 수요)** TSMC, 보쉬(Bosch), 인피니언(Infineon), X-Fab 등 주요 기업의 독일 내 생산시설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수요 증가 기대
  - \* EU 반도체법 도입에 따라 독일 내 신규 팹 설립이 대규모·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며, 공장 내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템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의 납품이 필수적
  - \*\* 독일 및 유럽 소재/ 진출 반도체 기업과의 잠재 협업 유망분야 관련 [KOTRA 2025 독일 진출전략](#) 참고 요망
- 유럽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로 직결되며, 중견·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에 적기인 바, 파운드리 공장 준공 관련 장비 구매 프로세스 사전 파악과 적극적 네트워킹을 통한 수출 기회 확보가 중요

## □ '35년 EU의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관련 EU 일정 연기 발표

### <EU 차원의 내연차 금지 및 자동차 CO<sub>2</sub> 배출량 규제 >

- EU,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에 합의 및 승용차·소형상용차 CO<sub>2</sub> 배출량 규제 강화 (자료원 : '24.5.14. EU 이사회)
  - \*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Fit for 55 패키지' 차원에서 자동차(승용차와 3.5~7.5t의 소형상용차)의 CO<sub>2</sub> 배출 규제안에 대한 3자 합의('22.10.) 및 '35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최종 결정('23.3.28. EU 27개 회원국 합성연료(E-Fuels) 예외 조항을 포함한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최종 승인)
  - \* 승용차에 대한 EU의 CO<sub>2</sub> 배출량 목표 기준은 '21년 대비 '25년 -15%, '30년 -37.5%로 감축 적용되며, '25년 EU 내 판매 신차의 평균 CO<sub>2</sub> 한도는 93.6g/km('24년 115.1g/km, '30년 49.5g/km)로 하향 조정, OEM이 차량 평균 기준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g당 95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 '24.4.10. 유럽의회, 대형 화물차 및 버스 CO<sub>2</sub> 배출규제(CO<sub>2</sub> 배출량 '19년 대비 '30년 45% → '35년 65% → '40년 90% 감축) 법안 승인 및 '24.5.14. EU 이사회 승인
  - \* 한편, EU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26년 내연기관의 폐지 재검토 강조, '26년 제로 배출 목표에 대한 재평가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세부 사항은 여전히 조정 가능함을 시사

- '24년 상반기 '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관련 찬반 논쟁 및 속도 조절론 부상
  - 독일 자동차 전문 매거진 Automobilwoche, EU의 '35년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 이슈화 ('24.4.3.)
  - **(찬성)** 모빌리티의 탈탄소화는 불가피하며, 전기차 전환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만이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 가능하다고 주장
    - \* 전기차 경쟁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배터리 기술 개선 및 생산비용 절감이 지연될 경우 경쟁력 상실 우려도 제기
  - **(반대)** EU의 '35년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가 산업 정책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전기차 전환에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
    - \* EU의 '35년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 계획은 공급망과 생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으며,

낮은 전기차 수요는 소비자 수용성이 아직 낮음을 시사, 충전 시간·주행거리·인프라·가격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시장은 자발적으로 전기차를 선택할 것이라는 입장

- 이에 독일 주요 완성차 기업 역시 '35년 내연기관차 퇴출 연기 계획 움직임
- **(주요 요인)** ① '23.12. 전기차 구매보조금 조기종료로 업계 매출 부진 급격 가속화\*, ② 충전 인프라 충분 여부 등 전기차에 대한 확신 부족, ③ 저가 전기차 모델이 다양하지 못한 상황 등으로 '30년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급 1,500만 대 달성 목표 적신회
- \* '24년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중단과 전기차 캐즘 확산으로 독일 자동차 시장의 순수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1.0% 감소(시장 점유율 전년 18.4% → 13.5%), '25.4. 누계 신규 등록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8%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전환('25.3. 기준 총 누적 차량 대수 기준으로는 3.3%) (자료원 : 독일연방 도로교통청(KBA))

○ '25.3.5.(수) EU 집행위,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 구제를 위해 '자동차 부문 혁신, 지속 가능성 및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 발표

- **(배경)**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판매가 당초 예측에 미치지 못하면서, 과도한 CO<sub>2</sub> 배출에 따라 '25년 수십억 유로 규모의 벌금 부담에 직면, 일부 제조업체는 '27년까지 벌금 유예 촉구
- \*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는 자동차 산업의 CO<sub>2</sub> 관련 벌금 규모를 최대 160억 유로(약 25조 원)로 추산,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폴크스바겐(VW)은 '25년 약 15억 유로(약 2.3조 원)의 CO<sub>2</sub>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
- 한델스블라트는 CO<sub>2</sub> 벌금이 VW, BMW, 메르세데스 등 전통 완성차 업체에 경쟁적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연구 개발 투자 여력도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
- **(규제 완화 움직임)** 전기차 수요 부진과 규제 부담 심화 속에서 EU 집행위는 자동차 CO<sub>2</sub> 배출 규제 완화 및 '35년 내연기관차 퇴출 여부의 조기 재검토 등 규정 완화를 적극 시사
- \* '25.1. EU 집행위는 현행 규제의 개정 및 간소화를 위한 일환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해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본격적인 대응 마련에 착수
- \* EU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5.3.3. 20여 명의 업계 대표들과의 회의 후 CO<sub>2</sub> 기준에 대한 목표 변경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합의된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도 업계에 더 많은 여력과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실용주의'라고 전함

#### <EU의 자동차 산업 액션 플랜(Action Plan)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세부 사항
1	CO <sub>2</sub> 배출량 목표 달성 기한 연장	기존 연도별 달성 의무 1년 → 3년으로 연장 ('25~'27년 통합 적용)
2	저소득층 대상 전기차 리스 지원	기후사회기금 활용, 신차·중고차 할인 리스 제공 (Social-Leasing-Programm)
3	충전 인프라 확장 지원	EU 차원에서 5억 7,000만 유로 투자
4	배터리 셀 생산 확대	30억 유로 즉시 투자 + 향후 2년간 18억 유로 추가 지원
5	전기차 구매 보조금	'26년까지 회원국별 제도 표준화 예정, 집행위는 모범사례

	프로그램 표준화	공유 및 협력 추진
6	내연기관차 폐지 검토 일정 조정	기존 '26년 → '25년으로 조기 검토 예정, '35년 이후 등록 금지 규정에 대한 유연성 논의 예상 기술 중립성 원칙 유지(배출 기준 충족 시 모든 드라이브 허용 가능), 업계는 명확한 기준 제시 요청 중
7	자율주행 기술 육성	자율주행을 위한 산업 연합 설립 제안

\* 주 : 상기 내용은 향후 EU 회원국 및 유럽의회 승인 필요

자료원 : EU 집행위 및 독일 주요 언론

- **(시장 및 업계 반응)**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의 뮐러(Hildegard Muller) 회장은 규제 유연화 움직임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며 신중한 긍정 평가
  -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 역시 인프라 확충과 수요 증가 없이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 강조
  - 반면, 독일 녹색당 소속 블로스(Michael Bloss) EU 의회 의원은 산업계 입장을 수용한 EU 집행위의 행보가 기후 목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함
- **(향후 전망 및 우리 기업 시사점)** EU 자동차 액션 플랜 발표로 자동차 산업계 전반에 변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으며, 독일 주요 완성차 기업은 전기차 전환에 따른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전기차 전환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미 기존 전략에 따라 전기차 전환을 추진해 온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부진 시기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현지 기업 대비 실질적 수혜 규모는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
  - 내연기관차 전면 폐지와 관련한 변경 사항은 아직 정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결정 추이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요구됨

## **EU, 경제 성장·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 실사지침(CSDDD)·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지침(CSRD) 중심 규제 간소화 추진**

- **(발단)** 환경·인권 이슈 확산과 함께 ESG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증가하며, EU는 지속가능한 기업 실사 지침(CSDDD)('24.7.25.) 및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23.1.) 시행
  - **(애초 추진 계획)** 동 지침은 발효 후 각각 3, 4, 5년에 이르는 전환 기간을 거쳐 적용 예정, EU 회원국은 '26.7.까지 지침 내용을 반영한 자국법 입법 전환 의무, '27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에 적용될 예정
  - **(실사 대상)** 업스트림 및 일부 다운스트림(재활용, 폐기 등)
    - \* 공급망(Value chain) 범위를 생산, 공급, 유통, 운송, 저장 및 폐기로 지정하고 소비자의 사용 단계의 다운스트림 제외
    - \*\* 세부 정보는 KOTRA ['EU 공급망 실사 지침 Q&A북'](#) 자료 참고 요망

○ (신규변동) EU 이사회, CSRD, CSDDD 시행 일정 연기 지침 발효 ('25.4.17.)

- 기업 성장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EU 집행위는 기업과 당국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ESG 관련 법령의 조화를 위해 옴니버스 법안을 제안 ('25.2.26.)
- 현재 EU는 규제 축소, 적용 대상 축소, 기업 부담 경감이라는 전체적인 방향성 아래 지속 가능성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 입법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
  - \* 이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택소노미 규정을 간소화하는 지침임
- \*\* EU 이사회는 우선 CSDDD와 CSRD 시행 일정 연기 지침안\*을 최종 승인('25.4.14.), 해당 지침은 EU 관보 게재 익일 발효('25.4.17.), 회원국은 '25.12.31.까지 관련 일정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 독일은 이미 '23.1. 이래 시행 중이던 공급망실사법(LkSG)을 CSDDD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25.5.6. 출범한 신정부는 연정 협정을 통해 해당 법의 폐지에 합의함

**<EU 공급망 실사지침 주요 변경 내용(초안 기준)>**

구분	내용
CSDD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국 자국법 입법 전환) 기존 '26.7.26. → '27.7.26.로 <b>1년 연기</b></li> <li>· (기업 적용 시기) 기존 '27.7.26.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8.7.26.부터 매출액 9억 유로 초과 기업에 적용되고, '29.7.26.부터는 CSDDD 적용 대상 기업에 전면 확대 적용 예정</li> </ul>
CS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ave 2, 3 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 <b>보고 의무 2년 연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ave 2(비상장 대기업) 기존 보고 시점 '26년 → '28년으로 변경('27년 회계연도 대상)</li> <li>- wave 3(상장 중소기업) 기존 보고 시점 '27년 → '29년으로 변경('28년 회계연도 대상)</li> </ul> </li> </ul>

주: 상세 내용은 EU 이사회('25.4.14)와 [KOTRA 브뤼셀무역관의 해외시장뉴스\('25.4.10\)](#) 참고 요망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EU 경제·통상 브리핑

○ (우리 기업 시사점) 해당 지침을 포함한 EU의 전반적인 규제 완화로 기업 부담은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이나, 인권·환경 의무 준수는 여전히 공급기업 및 협력 파트너 선정의 핵심 요건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기업 자체 관리 역량 강화 노력 필요

- \* 국내 대·중견기업의 경우 경쟁력 훼손 없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 선별 및 이해관계자와의 채널 공유 등 대응조치 지속 강화 필요
- 기업에는 데이터 수집·작성, 외부 감사, 지속가능성 인증 취득 등과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윤리 경영 강화에 따른 브랜드 인식 제고와 인력·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기대됨
- \* KOTRA ESG 헬프데스크를 비롯해 [ESG 활용센터의 지원 사업](#) 및 대한상의의 ESG 플랫폼 '으쓱(esg.korcham.net)' 등의 정보 적극 활용 요망

## V. 바이에른주 개황 및 특징

### 1. 바이에른주 개황

위 치	남부 독일
면 적	70,552 km <sup>2</sup> (독일 전체 면적의 20%)
주 도	뮌헨(München)
인 구	1,322만 명 (2025년 4월 28일 기준, 바이에른 통계청)
주요 도시	뮌헨(147만 명, 주도), 뉘른베르크(52만), 아우구스부르크(29만), 레겐스부르크(14만) *23년 기준
GDP	€7,916억 (2024년, 독일 전체 GDP의 18.38%)
실업률	3.7% (2024년, 독일 전체 6%)
경제성장률	-1.0% (2024년, 독일 전체 -0.2%)
교역규모 ('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액 : 2,263억 유로(2024년)</li> <li>- 주요 수출국 : 미국(289억), 오스트리아(179억), 중국(157억), 프랑스(148억), 이탈리아(143억), 폴란드(119억), 영국(115억)</li> <li>- 주요 수출품 : 자동차, 기계, 발전 및 배전 장치, 자동차 부품 등</li> </ul> </li> <li>○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액 : 2,281억 유로(2024년)</li> <li>- 주요 수입국 : 중국(325억), 오스트리아(178억), 체코(165억), 이탈리아(136억), 폴란드(133), 미국(127억), 헝가리(115억), 네덜란드(94억)</li> <li>- 주요 수입품 : 기계, 발전 및 배전 장치,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등</li> </ul> </li> </ul>
주지사	닥터 마르쿠스 쾨더 [Dr. Markus Soeder (CSU) / 취임일 : 2018.03.16]
공공기관/기업 진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 남양넥스모, 네오팍트, 두산전자, 디엠티, 뷰런테크놀로지,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 SDI, 서울로보틱스, 서울반도체, 성우하이텍, 센서뷰, 소울에너지, 아우토크립트,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에이디테크놀로지, 에스엘, 일진글로벌, 팜트론, 텔레칩스, 현대로보틱스 등</li> <li>○ 공공기관 : KOTRA</li> </ul>
대표 기업	Allianz(보험), Siemens(엔지니어링), BMW(자동차), AUDI(자동차), Airbus(항공), MAN(자동차,기계), Linde(에너지), Infineon(반도체), Wacker Chemie(화학), Schaeffler(자동차부품), ADIDAS(스포츠), PUMA(스포츠), MTU(기계, 항공부품)

## 2. 바이에른주 특징

### □ 연구개발 및 하이테크 산업 중심지

- 독일 주요 연구소인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프라운호퍼 연구소, 독일 우주 항공 연구소 등이 소재
-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 항공우주, 의료기기 및 환경산업 등이 고루 발달
- 주 정부 차원에서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하고 있음

### □ 경제수준

- 바이에른주의 1인당 GDP는 58,817 유로로 독일에서 3번째로 높으며(1위 함부르크 84,486 유로, 2024년 기준), 실업률은 3.7%로 독일 16개 주 중 가장 낮음(독일 전체 6%, 독일 수도 베를린 9.7%, 2025년 5월 기준)

### □ 바이에른 주 소재 주요 기업

(단위 : 유로, 2024년)

기업명	분야	매출액*	종사자 수
BMW	자동차	1,423억	159,104
Siemens AG	엔지니어링, 전기전자, 의료	759억	327,000
Allianz SE	보험	1798억	156,626
MAN Truck & Bus SE	상용차	137억	33,000
Munich Re Group	재보험	608억	43,584
Linde plc	에너지, 엔지니어링	343억	65,289
Ams-Osram	반도체, 조명	34억	19,665
Infineon Technologies AG	반도체	150억	58,065
ProSiebenSat.1 Media	방송사	39억	7,041
Wacker Chemie AG	화학	57억	16,637

\*자료원: 각 기업 홈페이지

### □ 바이에른주 주요 전시회



전시회명	개최월 (주기)	개최 도시	규모			
			면적 (m <sup>2</sup> )	참관객	참가업체(개사)	
					외국	독일
광학&디자인전 <u>Opti</u>	1월 (매년)	뮌헨	40,000	21,504	154	204
동계스포츠용품전 <u>ispo</u>	1월 (매년)	뮌헨	122,500	27,111	1,800	137
건축 설계 자재전 <u>BAU</u>	1월 (격년)	뮌헨	194,500	186,038	1,183	1,062
국제장난감전 <u>Spielwarenmesse</u>	2월 (매년)	뉘른베르크	165,000	51,680	1,933	429
국제건축.건설.광산기계전 <u>bauma</u>	4월 (3년)	뮌헨	614,000	495,132	2,095	1,132
레이저 전문전 <u>Laser World of Photonics</u>	6월 (격년)	뮌헨	63,000	42,034	788	432
환경전시회 <u>IFAT</u>	5월 (격년)	뮌헨	300,000	120,000	1,705	1,395
태양에너지전 <u>Intersolar</u>	6월 (매년)	뮌헨	112,400	94,299	968	407
전자 기계 공학전 <u>AUTOMATICA</u>	6월 (격년)	뮌헨	66,000	41,169	225	423
아웃도어 스포츠용품전 <u>Outdoor by ISPO</u>	6월 (매년)	뮌헨	35,000	7,643	493	102
제어·센서시스템 전문전 <u>SPS IPC Drives</u>	11월 (매년)	뉘른베르크	128,000	51,291	451	663
전자 부품·시스템전 <u>electronica</u>	11월 (격년)	뮌헨	150,000	69,783	1,335	805
제품 생산 기술전 <u>productronica</u>	11월 (격년)	뮌헨	91,500	42,275	768	633

\* 자료원: 독일전시산업협회(www.auma.de/en)

\*\* 상기 전시회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개최일자 또는 개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시회 참가 및 참관 전에 반드시 주최 측에 사전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VI. 독일 방문 및 체류 시 참고사항

### 1. 방문 관련 기본정보

#### ☐ 입국절차

- 한국과 독일 간 비자 협정에 의해 3개월 이하 체류 시 비자가 불필요하며, 입국 시 출입국신고서나 세관신고서 등 일체의 서류를 작성할 필요 無
- 입국 심사대는 EU 시민용 창구와 외국인 창구가 나뉘어 있으며, 입국 심사대에 여권만 제시하고, 입국 심사관이 질문 시 이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됨
- 세관신고서 양식은 없으나 일정 기준의 세관 규정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세관 신고 의무
  - \* 비EU 개인 여행자의 항공 및 선박 여행 시 최대 430유로(만 15세 미만 여행자의 경우 최대 175유로)에 해당하는 물품
  - 수하물을 찾은 후 통과 시 일부 여행객의 수하물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함

#### ☐ 호텔 예약

- [www.booking.com](http://www.booking.com) 에서 호텔 검색 및 예약
- 목적지 검색창에 뮌헨(Munich)을 입력
- 한글 서비스

호텔명	주소	전화번호
Hotel Vier Jahreszeiten Kempinski München	Maximilianstraße 17, 80539 München	Tel : 089 2125 0
Hotel Novotel München Messe	Willy-Brandt-Platz 1, 81829 München	Tel : 089 9940 00
Hotel Motel One München-Messe	Willy-Brandt-Platz 8, 81829 München	Tel : 089 4132 9920
Hotel Mercure München Altstadt	Hotterstraße 4, 80331 München	Tel : 089 2325 90
Leonardo Hotel München City Center	Senefelderstraße 4, 80336 München	Tel : 089 5515 40

## ☐ 생활정보

### ○ 기후

- www.wetter.de 에서 뮌헨(Munich) 검색 및 날씨 확인 가능
- 독일 기후는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의 중간형
-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크며, '23년 연평균 기온은 10.°6 기록
- 한국과 유사하게 사계절이 있으나, 한국보다 기온이 대체로 낮으므로 출장 시 좀 더 따뜻한 복장 준비 필요, 봄, 가을, 겨울에 비가 자주 오는 편이며, 여름에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므로 긴팔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 ○ 대중교통 : 지하철(U-Bahn), 국철(S-Bahn), 트램(Tram) 및 버스(Bus)

- 뮌헨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시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마다 운행 시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정시 출발 도착. 교통티켓 1장으로 지하철 (U-Bahn), 국철(SBahn), 전철(Tram) 및 버스 모두 환승, 이용 가능
- 이동 구간과 이용 시간을 기초로 다양한 교통운임체계 운영
- 대중교통의 구간은 크게 시내중심(Innenraum : Zone 1-4), 외곽 (Aussenraum : Zone 5-16), 전 구간(Gesamtnetz : Zone 1-16)으로 나뉘어져 있음
- 구입한 티켓은 승차하기 전에 반드시 지하철 플랫폼과 버스/전철 내부 개찰기에 소인을 찍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검사원의 불시검문 시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6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함.

### ※ 티켓 종류 & 요금 안내

- 편도 티켓 (Einzelfahrkarte) : 한 방향으로만 이동 가능/ 왕복 금지
  - \* 어른 기준(시내 M존) 4.10유로
- 1일 티켓(Tageskarte) : 당일 하루 종일 ~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유효
  - \* 어른 기준(시내 M존) 9.70유로
- 자세한 티켓 관련 정보 및 이동 구간 검색 가능 사이트

👉 <https://www.mvv-muenchen.de/en/index.html>

### ○ 시티 투어 카드 (City Tour Card)

- 뮌헨 시내와 인근 외곽지역의 모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 유적지나 박물관등에서 최고 50%까지 할인. 파트너 티켓은 최대 5명 까지 사용 가능. 자세한 요금 정보 및 구매 안내는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https://www.mvg.de/tickets-tarife/muenchen-besucher/citytourcard.html>

### ○ 택시

- 택시기사에게 행선지 거리명과 번지수만 알려주면 목적지까지 안내
- 택시는 보통 택시 승강장에서 타거나 전화로 호출해야 하지만 거리에서 지나가는 택시도 이용 가능. 기본요금 : 5.90 유로, 1km당 2.70유로
- 택시호출번호 : +49(0)89-21-610

### ○ 전화

- 일반 대중 전화기를 이용해도 좋으나, 유심칩과 선불(Pre-paid)카드를 구매해 한국 휴대폰에 장착해 사용하는 것이 편리, 이 경우 인터넷 데이터도 활용 가능
- 선불카드는 인터넷이나 Deutsche Telekom 계열의 T-Mobile을 비롯하여 Vodafone, e-Plus, O2 등의 지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dm(드럭스토어)이나 Aldi(슈퍼), Lidl(슈퍼) 등에서도 구매가 가능 (단, 경우에 따라 현지 주소를 요청하므로 유의)
- 출장 또는 여행자의 경우 국내에서 사전 구매해 유럽 내 바로 개통이 가능한 유럽 유심을 미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

### ○ 환전

- 공항이나 주요 은행지점에서 가능하며, 은행별로 수수료에 차이가 있음
- 코메르츠 은행(Commerzbank),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Sparkasse(저축은행) 등을 활용 가능

### ○ 전압

- 독일의 전기 규격은 50Hz, 230V로 대부분의 한국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나, 모터가 들어간 일부 제품(세탁기, 냉장고, 헤어드라이어 등)은 고장이 날 우려가 있음
- TV와 비디오 레코더는 우리나라의 NTSC 방식과는 달리 PAL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멀티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 불가

### ○ 시차

- 독일에서는 서머타임(Summer-time)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과 10월 마지막 일요일 새벽 2시에 시간이 조정됨
-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이후는 서머타임으로 한국과의 시차가 7시간,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이후에는 8시간 차이

### ○ 여권 분실

- 여권을 분실한 경우 경찰에 분실신고를 한 후, 분실/도난 증명서를 받아야 함
-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면 여행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이는 한 달간 유효

- 뮌헨에는 대사관 및 영사관이 소재하지 않으므로 베를린대사관 혹은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 문의하여야 함
- 뮌헨 류승석 영사협력관 연락처 : +49 (0)179 3298 013
- ※ 필요 서류 : 진술서, 경찰서발부 분실 증명서, 사진 2매, 분실 여권번호와 발행일

#### ○ 항공권 분실

- 대부분 항공사에서 항공권 재발급이 가능 (항공권 복사본이 있으면 쉽게 재발급 처리)
- 분실 즉시 여권을 지참, 현지 해당 항공사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분실 사유서 작성
- 시간이 없을 경우 새 티켓을 구입하고, 분실 티켓은 추후에 항공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환불 가능
- 재발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재발급 소요시간은 항공사별 상이

### □ 문화적 유의사항

#### ○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계획성, 합리성 추구

- 독일 기업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고, 한번 신뢰가 형성된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 미국과 달리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대부분 정장을 입고,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몇 주 전 약속을 잡아야 만날 수 있는 등 보수적인 면이 강한 편
- 계획성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강해 충동구매 가능성이 적으며 사실(fact) 위주의 의사결정

#### ○ 목적을 사교보다 더 중요시

- 독일인들은 스몰토크(small talk)가 적은 편이며,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 목적 달성 추구
- 미팅 전 상대방의 상품 및 기업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
- 철저히 객관적인 자료 및 정보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상품을 홍보하기 보다는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 ○ 지나친 접대는 지양

- 독일 기업의 윤리경영은 국내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내 방문 시에 지나친 접대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특히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지나친 접대는 지양 요망

## 2. 식당정보

### □ 한식당

식당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영업시간
서울	Leopoldstraße 120, 80802 München Tel : 089-348 104	화-일 : 12:00-14:30, 18:00-23:00 (월요일 휴무)
아리수	Triftstraße 1, 80538 München Tel : 089 2424 3594	월-금 : 11:00-15:00, 18:00-22:00
김가네	Theresienstraße 138 Tel : 089 3796 6880	화-일 : 11:30-14:30, 18:00-23:00 (월요일 휴무)
한식	Thomas-Wimmer-Ring 9, 80539 München Tel : 0179 1423 207	월-금 : 06:30-15:00, 토요일 11:00-20:00 (일요일 휴무)
유유미	Fraunhoferstraße 11, 80469 München Tel : 089 2420 7624	일-목 : 12:00-22:00, 금~토요일 12:00-22:30
89 안주	Luisenstraße 47, 80333 München Tel : 089 9090 1189	월,수-금 : 11:30-14:30, 17:30-23:00 토-일 : 17:30-23:00 (화요일 휴무)
한쌈	Schleißheimerstraße 456, 80935 München Tel: 089 4133 6705	월,수,목: 17:30-22:30 금,토,일: 12:00-15:00, 17:30-22:30 (화요일 휴무)

### □ 독일식당

식당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영업시간
라츠켈러	Marienplatz 8, Muenchen Tel : 089 219 9890	일-월 : 11:00-23:00
호프브로이 하우스	Platzl 9, 80331 München Tel : 089 290 136 100	일-월 : 11:00-00:00
쥘 프란치스카너	Residenzstraße 9, 80333 München Tel : 089 231 8120	일-월 : 10:00-00:00 (월요일 휴무)

\* 성수기에는 독일 식당이 예약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약 필수이며 영업시간 또한 현지 휴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터넷으로 확인 요망

### 3. 관광 정보

#### □ 뮌헨 시내

##### ○ 바이에른 왕국 궁전 (Residenz, 레지덴츠)



1385년에 뮌헨 외곽에 Neuveste라는 성(城)을 쌓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수 세기에 걸쳐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 1508년부터 1918년까지 바이에른 공작, 선제후, 왕들의 집무실 및 거처로 사용되었으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함.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등 다양한 양식으로 장식된 100여개의 방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이에른 왕실의 왕관이 전시되어 있는 보물의 방(Schatzkammer)인데, 이 밖에도 비텔스바흐(Wittelsbach) 가문의 초상화 등 많은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 \* 입장료 : 레지덴츠 박물관: 10유로, 보물의 방 : 10유로
- \* 개관 시간 : 09시~18시 (하절기/4월~10월15일),  
10시~16시 (동절기/10월 16일~3월)
- \* 위치 : S-Bahn/U-Bahn의 Marienplatz역에서 하차, 신 시청사 옆 Residenzstrasse를 따라 도보로 8분소요
- \* 홈페이지 : [www.residenz-muenchen.de](http://www.residenz-muenchen.de)

##### ○ 뮌헨 新시청 (Neues Rathaus, New Townhall)



뮌헨 마리엔 광장(Marienplatz)에 위치하며 신 고딕 양식으로 건축되었음. 매일 오전 11시, 낮 12시, 오후 5시에 시간을 알리는 글로켄슈필 (사람 크기의 인형)이 유명함. 1867~1908년 신시청사 개축 시 43개의 종과 32개의 실물사이즈 인형으로 만들어졌음. 처음에는 1568년에 있었던 바이에른 공작 빌헬름 5세(Hofbräuhaus 건립자)와 레나타의 결혼식이 재현되고 이어서 무용수들이 나와 즐겁게 춤을 추는데 이는 1515년 부터 1517년까지 유행했던 페스트가 사라짐을 알리고 이를 기념하는 의식임

- \* 위치 : Marienplatz 8, 80331 Munich

○ 뮌헨 성모 교회 (Frauenkirche)



마리엔 광장에서 약간 서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프라우엔(성모) 교회. 규모가 너무 커서 멀리 떨어져서 봐야만 교회 전체가 다 보일 정도임. 높이 109m, 폭 40m에 이르는 거대한 성모 교회 꼭대기에는 2개의 둥근 모양의 탑이 있음. 프라우엔 교회 내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막시밀리안 황태자 묘와 **악마의 발자취\***.

**\* 악마의 발자취란 ?**

교회 건축 당시, 건축가와 악마의 거래에 대한 전설로 이름이 생기게 되었음. 악마가 성모 교회 건설에 일조하는 조건으로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볼 수 없도록 해주겠다고 건축가가 약속을 했으며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건축가가 악마를 안내한 자리에만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만들었다고 함. 나머지 자리는 밝은 빛이 들어오며, 그 악마가 창문이 보이지 않는 한 자리로 걸어갔는데 발자국이 남았다는 설이 전해져오면서 '악마의 발자취'란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고 함.

○ 고대, 근대, 현대미술관 (알테, 노이에, 모데르네 피나코텍)



알테 & 노이에 피나코텍, 피나코텍 모던 (Alte & Neue Pinakothek, Pinakothek der Moderne) 은 비슷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알테피나코텍에는 중세~로코코 시대까지의 작품을 전시. 노이에 피나코텍에는 18세기 후반~20세기까지의 예술작품 전시. 제일 최근에 생긴 피나코텍 모던은 알테 피나코텍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20세기 이후의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특히 노이에 피나코텍은 루벤스의 작품, 알테 피나코텍은 알브레히트 뒤러의 자화상으로 유명.

- \* 주소 : Barer Strasse 27, 29, 40(알테 피나코텍, 노이에 피나코텍, 피나코텍 모던)
- \* 대중교통
  - U-Bahn 역 : Theresienstrasse (U1, U2, U8)
- \* 노이에 피나코텍은 보수공사로 인해 2025년까지 휴관

○ BMW 박물관 (BMW Museum)



- \* 1978년 개관
- \* 연면적 5,000㎡에 BMW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는 120여 전시품 (자동차, 오토바이, 엔진 등) 전시
- \* 위치 : BMW 본사 바로 옆
- \* 주소 : Am Olympiapark 2, 80809 München
- \* 개관시간 : 10시~18시 (월요일 휴관)

○ 호프브로이하우스 (Hofbräuhaus)



1589년 바이에른 공작 빌헬름 5세(1579-1597)가 가이젠펠트 수도원(Geisenfeld Monastery)의 수석 양조장인 Heimeran Pongraz를 스카웃 Hofbräuhaus 양조장 설계, 개발토록 함. 인근Alter Hof에서 1592년 맥주 생산 시작. 1607년 현재의 장소로 양조장 옮김. 1828년부터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됨. 이때부터 매우 유명해져 명성을 얻게 되었고, 2004년부

터는 뮌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나라에도 호프브로이 하우스가 생겨났음. 이곳에서 매일 바이에른 전통 음악이 연주됨

- \* 위치 : Am Platzl 9, Muenchen,
- \* Tel : +49-(0)89-290-1360
- \* 홈페이지 : <http://www.hofbraeuhaus.de>

○ 국립 독일 박물관(Deutsches Museum)



1903년 6월 28일 독일 공학자 협회(Verein Deutscher Ingenieure; VDI)의 정기 모임에서의 오스카 폰 밀러의 계획에 의해 설립됨. 세계 최대의 과학과 기술 분야 박물관으로,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50개 전시실에서 28,000개의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음. 뮌헨 근교(항공관, 교통관)와 본(과학기술)에 분관 있음.

- \* 개관시간: 매일 9:00-17:00
- \* 주소: Deutsches Museum of Masterpieces of Science and Technology  
Museumsinsel 1 D-80538 München
- \* Tel : +49 89 2179 1
- \* 홈페이지 : <https://www.deutsches-museum.de/en/>

## VII. 현지 주요 연락처

### □ KOTRA 뮌헨무역관

- 주소 : Bürkleinstraße 10, 80538 Munich
- 전화 : +49-(0)89-2424-2630
- 웹사이트 : [www.kotra.or.kr/KBC/munich](http://www.kotra.or.kr/KBC/munich)

### □ 한국 대사관(영사관)

#### ○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Stuelerstr. 10, 10787 Berlin
- 전화: +49-(0)30-26065-0
- 긴급연락처: +49-(0)173-407-6943 (각종 범죄 피해,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 팩스: +49-(0)30-2606551
- 메일 koremb-ge@mofa.go.kr

#### ○ 주독 대한민국 대사관 본 분관

- 주소: Godesberger Allee 142~148. 3OG., 53175 Bonn
- 전화: +49-(0)228-94379-0
- 긴급연락처: +49-(0)170-337-9105 (각종 범죄 피해,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 팩스: +49-(0)228-3727894
- 메일: admin-bn@mofa.go.kr

#### ○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 주소: Lyoner Str. 34, 60528 Frankfurt/M.
- 전화: +49-(0)69-956752-0
- 긴급연락처: +49-(0)173-363-4854 (각종 범죄 피해,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 팩스: 069-569814
- 메일: gk-frankfurt@mofa.go.kr

## □ 긴급 연락처

구분	전화
경찰	110
소방서/응급환자	112
환자수송 앰블런스	+49-(0)89-19222
당직근무병원	+49-(0)89 3304 0302


## □ 뮌헨 공항 (뮌헨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38km)

- 주소 : Nordallee 25, 85356 München-Flughafen
- 전화 : +49-(0)89 975 00 (일반 정보), +49-(0)975 213 13 (이착륙 시간 안내)
- 홈페이지 : [www.munich-airport.de](http://www.munich-airport.de)

## □ 공항에서 뮌헨 무역관 오시는 방법

### ○ S-Bahn 및 지하철 (U-Bahn) 이용 시

- 뮌헨공항 역에서 전철(S 1번 혹은 S 8번)을 타고 Isartor역에서 하차하셔서 Thierschstrasse 방향의 출구로 나오십시오.
- 출구로 나오셔서 바로 좌측의 길을 따라 Thomas-Wimmer-Ring 도로를 따라 350m 정도를 걸어오시면 Maximilianstrasse 사거리가 나옵니다.
- 사거리에서 걸어오신 방향으로 신호등을 건너서 Karl-Scharnagl-Ring 도로를 따라 150m 정도 직진하신 후 우측의 OBJECT CARPET 쇼룸이 위치한 빌딩 5층에 뮌헨 무역관(Korea Business Center Muenchen)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전철(S-Bahn)표는  표시가 있는 안내 센터 또는 발권 기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요금은 짧은 구간용 편도티켓(독일어 : Einzelfahrt / 영어 : Single Ticket )을 자판기에서 구입 후, 개찰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데이 티켓(독일어 : Tageskarte / 영어 : Day Ticket )을 구입 하시면, 개찰 후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해당구간 안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 시에는 정기권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 공항버스 이용 시

- 공항 터미널 1 또는 2에 있는 공항버스 승강장에서 2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루프트한자 공항버스 (Lufthansa express bus)를 타고 중앙역(Munich Central Station영어 / Munchen Hauptbahnhof독일어) 까지 오신 후 전철(S-Bahn) 또는 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금: 성인기준 공항에서 중앙역까지 편도 12,00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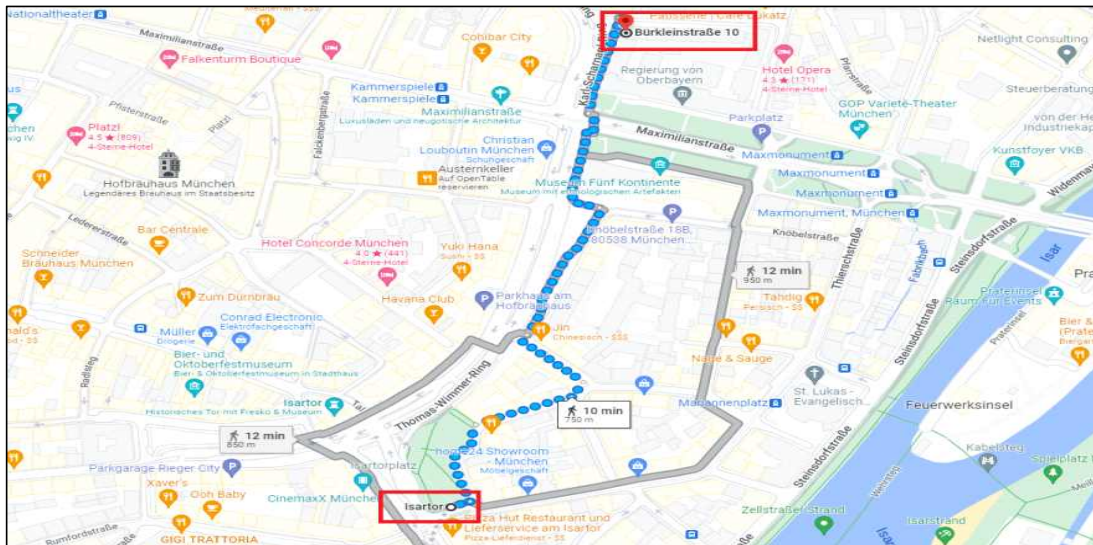
### ○ 택시 이용시

- 공항, 중앙역(Hauptbahnhof) 등 택시 승강장이 있는 경우는 바로 탑승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불러야 합니다. (Call Taxi 전화번호: 21610) 택시 탑승 후 해외무역관 주소를 택시운전사에게 제시하면 바로 해외무역관 앞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요금 : 공항-뮌헨 전시장 94 유로, 공항-중앙역 106 유로, 중앙역-전시장 43유로)

### ○ 자가용 이용시

- 무역관 인근 호프브로이하우스 주차장(Parkhaus Hofbäuhaus. 주소 : Thomas-Wimmer-Ring 9a, 80539 München) 주차 후 도보 5분

<약도 : Isartor에서 무역관 찾아오시는 길>



##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http://www.kotra.or.kr)